

23

전자제품 제조업 근무자에게 발생한 폐암

성별	여	나이	55세	직종	성형과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이○○(여, 55세)는 2000.3.27. S전자(주)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2.12.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사업장은 자동차 오디오의 각종 스피커 진동판을 제조하며 지하 작업장에서 위치하고 있었다. 입고된 원자재를 금형으로 성형한 후 접착제를 도포하여 접착한 다음, 보강작업을 거쳐 출고한다. 근로자는 입사하여 성형작업을 해 오다가 폐암으로 진단받기 전 6개월 간은 하루 7~8천개의 스피커 진동판의 보강 작업을 하였다. 보강 작업은 진동판 테두리와 가운데 볼록한 부품을 접착하더라도 떨어질 수 있어 보강기 노즐을 통해 공급되는 접착제로 다시 접착하는 작업이다. 사업장 사용물질은 세척제로 톨루엔, 접착제로 본드, 락카 등이다. 작업환경측정결과 펜탄, 아세톤, 메틸아세테이트, 메틸에틸케톤, 톨루엔 등에 대해 측정되었고 노출기준 미만이었다.

3 의학적 소견

이○○은 살림만 하다 42세 때인 1990년부터 9년 간 박스 포장, 스피커 완제품 접착, 스피커 불량품 검사 등을 하였다. 음주 및 흡연을 하지 않았고 과거 질병을 앓은



적도 없었다. 2002년 2월 건강진단에서 폐결핵 소견으로 결핵약을 복용하면서 지내다 위장관 장애로 병원 진료 중 큰 병원 가라는 권유받고 12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시행하고 폐암 진단되었다. 근로자는 과거 직업력을 고려할 때 6.5~7.5년 간 접착제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, 작업장이 지하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화학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나 사업장에서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은 발견할 수 없었다.

4 결 론

이○○의 폐암은

- ① 폐암(선암)으로 진단되었는데,
- ② 진단받기 약 12년 8개월 전부터 6.5~7.5년 간 접착제에 노출되었으나,
- ③ 이들 접착제 자체 또는 구성 성분이 폐암 발암 물질이라고 볼 수 없어,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.